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 1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이승훈 · 홍두승

Emergent Informal Economic Sector and Re-stratification in North Korea

Seung-Hoon Lee & Doo-Seung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남북교류가 증대하면서 21세기 한반도의 창조적 미래 구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남북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 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통일 과정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통일 문제에 맞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총체적인 시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통일 과정에 돌입했을 때 그 전 과정을 적절히 관리할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통일 논의가 구체화되고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에 적합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한국 지식인의 책무일 것이다. 반세기 이상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해 온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적절히 통합하고 전쟁의 상처와 오랜 대립에서 비롯되는 적대감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획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동북아 지역질서와 연계시키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도 지식인들의 높은 식견과 섬세한 대응 역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대학교는 2003년부터 통일학 연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우리 사회의 지적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진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통일 연구사업은 북한에 대한 지역연구 차원을 넘어 통일 과정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을 학제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환경의 영역은 물론이고 농학과 의학, 과학기술과 예술 및 체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 일을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종합학문으로서의 통일학을 정립하고자 애쓰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는 통일학 연구총서와 더불어 이러한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다. 이 신서가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분단 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역사적 장정에 긴요한 지적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통일연구의 시대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대학교 통일 연구사업의 제도적 바탕을 마련해 주신 정운찬 전 총장님과 변함없이 이 연구사업을 지원, 격려해 주시는 이장무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07년 6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출판위원회

머리말

계획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국가배급이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건설할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개인을 모두 비소유자로 만들어 '무계급 사회(classless society)'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정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하고 국가배급으로 물자를 수령하여 생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개별적 경제활동이 금지되면서 의견상 평등사회가 구현되었지만 국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집단과 그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국민들 간에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모든 공산국들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북한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는 허구적인 것으로 불평등은 정치권력, 경제적 부, 사회문화적 기회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도 명백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과 같은 귀속적 지위는 계층층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급에 기초한 경제생활과 당 중심의 권력구조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사회를 지탱해 온 양대 축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산업의 생산성은 극도로 저하되고, 국가 생산기반이 붕괴함에 따라 배급제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각

자 스스로의 생계를 도모하지 못하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 이런 와중에 2002년에 도입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려는 북한 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새로운 상황에서 사회계층 또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가배급에 기초한 과거의 공식적 생활방식이 급속히 무너졌고 개인별 생존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비공식 부문이 형성·확대되고 있으며, 공식 부문은 급격히 비대한진 비공식 부문을 합당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무계급 사회에서 불평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 수용들이를 겪으면서도 북한 당국은 핵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안보환경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핵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래저래 북한 내부의 동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북한 연구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었던 탓에 그 내용이 충실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각종 경로를 통한 교류가 빈번해짐으로써 북한 사회에 관한 정보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탈북자들은 폐쇄의 그늘에 가려진 북한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과의 면담을 기본 자료로 삼고 각종 문헌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모습을 진단한 보고서다.

이 연구는 두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의상 경제 부문과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탈북자 인터뷰 및 자료 정리에 이르기까지 이승훈(경제학)과 홍두승

(사회학)이 함께 진행하였다. 집필은 비공식 부문의 대두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이승훈이, 사회 계층구조의 변화는 제2장에서 홍두승이 담당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화 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대학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면접 대상 탈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가정보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조원으로 애써 준 서울대 경제학부 정현일 박사과 경영대 박사과정의 성지영 씨께도 감사드린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탈북자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8월

지은이

■ 차례 ■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 시리즈를 내면서 v

머리말 vii

들어가면서 1

제1장 북한의 경제의 파국과 비공식 부문의 대두

1. 서언 7
2. 북한 체제의 과거 10
3. 공식적 생산 및 배급체계의 붕괴 23
4. 북한 사회통제의 본질과 변화 73
5. 맺음말 88

제2장 북한의 탈계층화와 재계층화

1. 서언 91
2. 초기의 사회주의 개혁 94
3. '신계급'으로서의 특권층과 '평백성' 99
4.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와 재계층화 107
5. 계층이동 132
6. 맺음말 145

맺음말 147

참고문헌 151

찾아보기 159

Abstract 161